

자폐스펙트럼장애 유·아동과 부모가 함께하는 국내·외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탐색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f social encouragement program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nd their Parents)

이효신(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신윤희(대구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BK21플러스팀 연구교수), 정은지(대구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석사과정)

연구의 필요성

태어나 모든 사람은 영유아기에 겪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작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라 말할 수 있다. 부모가 유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얘기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중재효과 및 유지효과에는 부모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ASD유아동의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이 가장 특징인 만큼 부모와 중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국내외 연구들이 ASD 아동과 부모가 함께 참여한 사회성 증진 연구는 많이 실시 되고 있다(윤현주 · 광금주, 2006; 최신행 · 주세진, 2012; 김진선, 2008; 채유선 · 이소현, 2008, Poslawsky et al., 2014; Radley et al., 2014; Sunyoung, 2016).

현재 국내에서 ASD 아동과 가족들이 참여한 국내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본 연구(김경민 외, 2013)와 국외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본 연구(박나리, 2008)는 각각 있지만 국내와 국외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심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ASD 유·아동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킨 연구들의 다양한 변인들을 의미화하고 체계화하여 연구 들을 고찰하여 향후 ASD 유·아동과 부모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997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논문 중 ASD 유·아동과 부모가 함께 참여한 실험연구만을 선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검색엔진과 키워드를 사용, 검색하였고 Simpson(2005)에 의한 중재프로그램 접근법으로 분류하였으며 접근법에 따른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였다.

연구대상논문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간 두 차례의 논의를 거쳐 기록자간 분석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명료화된 분석기준에 따른 신뢰도는 1차 신뢰도의 경우 국내 73.61%, 국외 87.5% 2차 신뢰도의 경우 국내 87.5%, 국외 90.18% 3차 신뢰도의 경우 국내 94.2%, 국외92.1%이었다.

국내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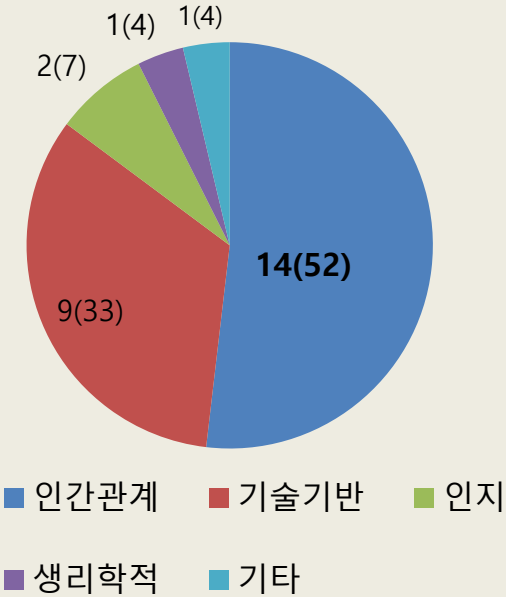
- ①RISS4U, 교보문고, KISS 등의 전자검색 서비스를 이용
- ②키워드: '자폐+애착', '자폐+모-아', '자폐+부모', '자폐+어머니', '자폐+부모+상호작용', '자폐+공동관심'
- 105건 중 27건 채택

국외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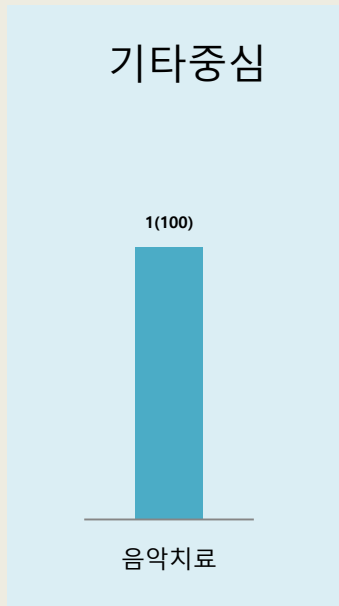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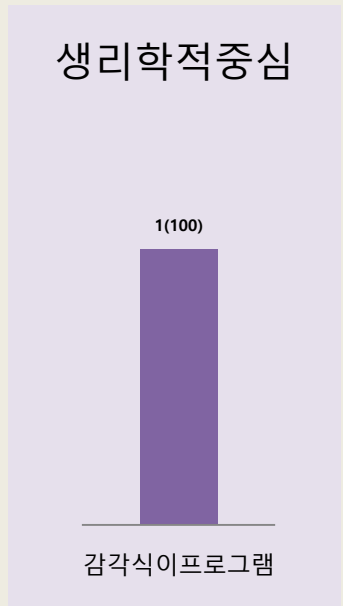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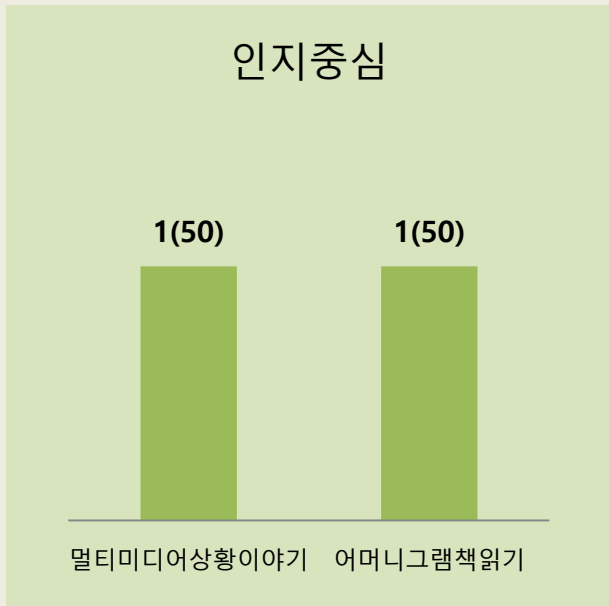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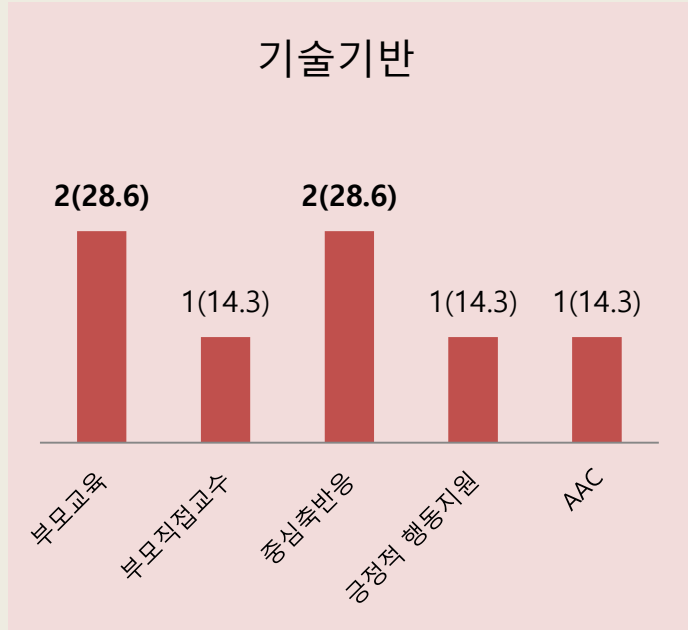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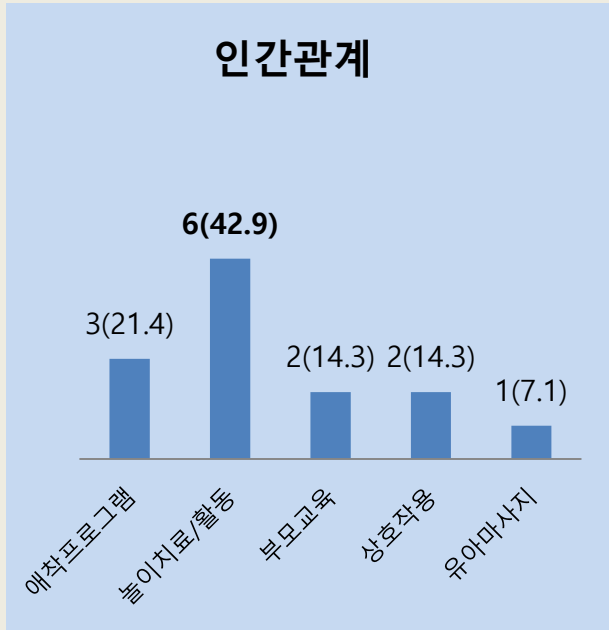
- ①'EBSCO host'의 검색 엔진사용
- ② 키워드: 'Autism+parents+interaction', 'Autism+attachment', 'Autism+mother', 'Autism+joint attention'
- 58건 중 30건 채택

결과(국내연구)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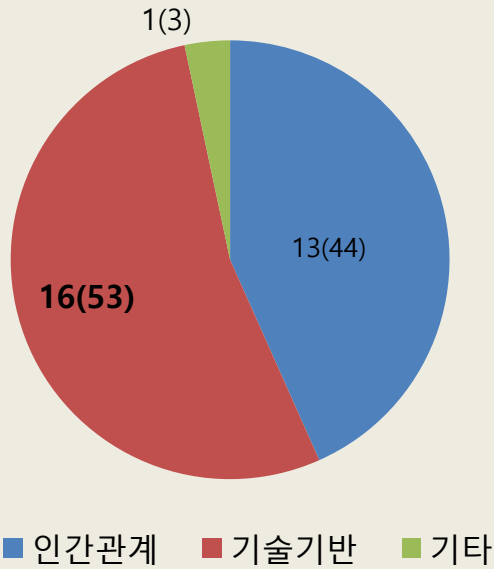


국내연구를 분석한 결과 인간관계가 14편(52%), 기술기반중심이 9편(33%), 인지중심이 2편(7%), 생리학적 중심과 기타중심이 각각 1편(4%)로 분석되었다. 인간관계 중심에서는 놀이치료/활동 프로그램이 6(42.9%)편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기술기반 중심에서는 부모교육과 중심축반응 훈련프로그램이 각 2(28.6%)편씩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중심에서는 멀티미디어 상황이야기와 어머니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이 각각 1편(50%)씩 나타났고 생리학적 중심에서는 감각식이(감각통합)프로그램, 기타중심에서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1편(100%)씩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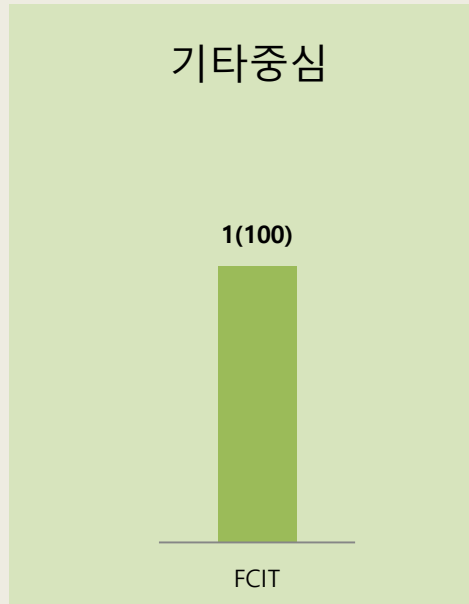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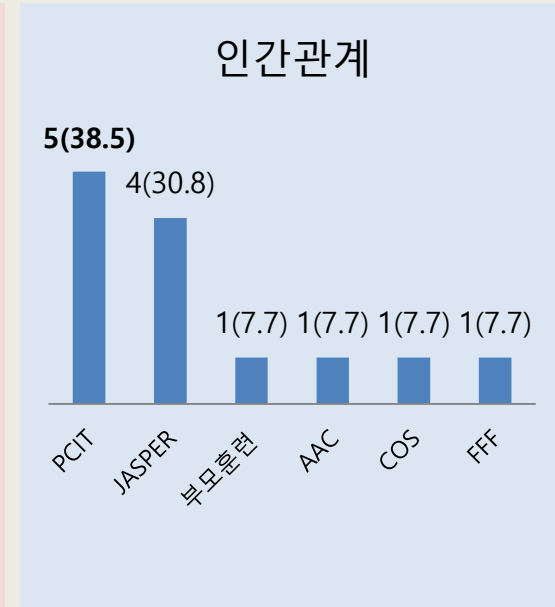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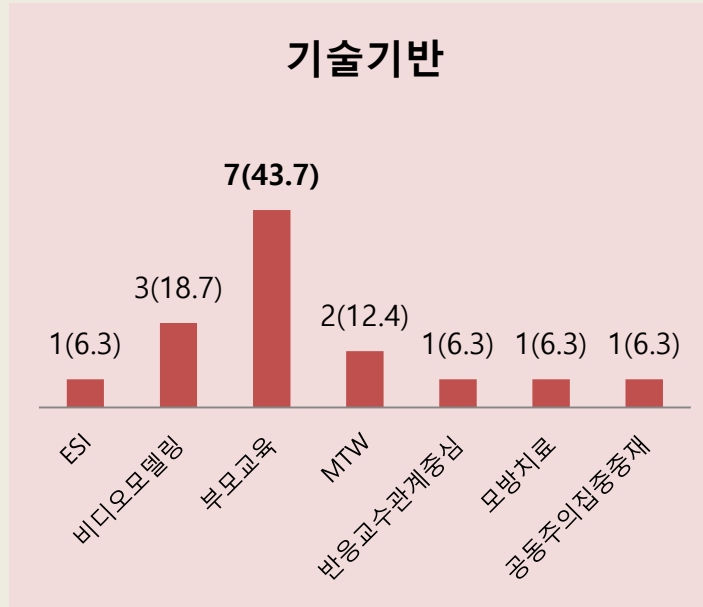
결과(국외연구)

편(%)



국외연구를 분석한 결과 인간관계가 13 편(44%), 기술기반중심이 16편(53%), 기타중심이 1편(3%)로 분석되었다.

인간관계 중심에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7편(43.7%)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기술기반 중심**에서는 **PCIT**가 5편(38.5%)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중심**에서는 **FCMT**가 1편(100%) 나타났다.



축약된 프로그램 상세명

- ESI(Early Social Intervention)
- MTW(More Than Words)
- PCIT(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 JASPER(Joint Attention Symbolic Play, Engagement, and Regulation)
- COS(Circle of Security intervention)
- FFF(Family-Focused Floortime)
- FCIT(Family Centred Music Therapy)

결론

국내연구

1. 인간관계중심접근법
2. 기술기반중심 접근법
3. 인지중심접근법
4. 생리학적 및 기타 중심접근법

국외연구

1. 기술기반중심접근법
2. 인간관계중심접근법
3. 기타중심접근법

- 인간관계 중심접근법에서 국내연구의 경우 놀이치료/활동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가 많았으며 국외연구의 경우 JASPER와 PCIT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이 많았다.
 - 인간관계 중심 접근법에서 국외연구의 경우 체계화된 특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반복 연구가 많은 반면 국내연구의 경우 특정 프로그램의 활용이 높지만 연구자가 임의대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국내연구에서 부모가 함께 실시하는 사회성증진 프로그램의 경우 어느 프로그램이 내적타당도가 높은지 또는 프로그램마다의 효과치에 대한 검증하는데 어렵다.
- 기술기반 중심 접근법에서는 국내연구의 경우 부모교육이나 부모매개 중심축반응훈련을 실시한 경우가 많았으며 국외연구의 경우 부모교육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많았다.
 - 국내연구와 비교하여 국외연구의 경우 부모교육 및 부모훈련을 실시할 때 모델링 기법이나 비디오모델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중재 회기마다 중재 후 부모에게 피드백을 제공했다. 이는 부모가 전문가가 아닌 점을 생각하고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효과성 증대 및 중재 일관성의 부분을 고려하여 국내연구에서도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